



2020년 12월 29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29.(화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12. 28.(월)	담당부서	중견기업정책과
담당과장	김홍주 과장(044-203-4360)	담당자	김수진 서기관(044-203-4365)

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」 종합 금융지원

2021년도 산업부 신규선정 개시

- 산업부는 '21년 상반기 100개사 규모 선정을 목표로 절차 개시
- 선정시 대출·투자·보증 등 종합 금융지원 실시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」 종합 금융지원 대상 기업 선정을 공고하고 2021년도 신규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함

- 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」 종합 금융지원은 금융위원회와 산업부·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중견·중소기업의 혁신성에 기반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하고자 금년에 신규 출범한 프로그램임

□ 금년 7월 이후 정부는 2차례에 걸쳐 279개 기업을 대표 혁신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,

* (20.7월, 1회차) 산업부·중기부 참여/ 32개 기업 선정

(20.11월, 2회차) 산업부·중기부·과기정통부·복지부·해수부 참여/ 247개 기업 선정

-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에 대해 정책 금융기관 등*을 통해 약 6,000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음

* 산은, 수은, 기은, 신보, 기보, 한국성장금융

< 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」 금융지원 실적(20.12.10일 기준)>

구 분	업체수*	건 수				합계
			대출	보증	투자	
1회차	23	60	3,694	1,040	-	4,734
2회차	32	40	900	53	60	1,013
합 계	55	100	4,594	1,093	60	5,747

* 중복지원을 감안한 업체수

* 출처 : 금융위원회

(단위 : 개, 건, 억원)

< 선정기업 주요 지원 사례 >

A사	<p>◇ 미래차 엔진·변속기 부품 제조 기업</p> <p>▶ 자율주행차량의 제어를 담당하는 브레이크 시스템 등 다수의 특허를 보유 중</p> <p>⇒ 4개 정책금융기관(산은·수은·기은·신보)이 총 340억원 대출·보증 지원</p>
B사	<p>◇ 시스템반도체 패키징 기업</p> <p>▶ 시스템반도체 주요 공정에 핵심 기술 보유</p> <p>⇒ 산은은 높은 기술력을 감안하여 내부 평가등급을 상향하고 운영자금 대출지원(150억원, △0.6% 금리감면)</p>
C사	<p>◇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업</p> <p>▶ 세계 최고 수준의 제형 개발능력, 코팅기술, 압축성형기술 등 보유, 안정적인 글로벌 생산공급체계 확보</p> <p>⇒ 차입금 비율이 다소 높으나,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여 신보 P-CBO 보증 50억원 지원</p>

- 산업부는 내년에도 국가대표 혁신기업 선정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을 가진 200개 이상 중견·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임
- 특히 사업재편 승인, 소재·부품·장비 으뜸기업,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,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기업에게는 선정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서
- 부처별로 실시하는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를 확대한다는 방침임
- 금번 선정 공고와 관련한 상세사항은 산업부(www.motie.go.kr)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(www.ariat.or.kr)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,
- 신규지원 대상기업 최종 선정은 민간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'21년 상반기중 확정될 예정임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김수진 서기관(☎044-203-4365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① 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」 선정

- 관계부처 등이 각 산업부문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, 주요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기업 Pool을 구성하고,
-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·절차에 따라 기업의 혁신성/성장 가능성을 판단하여 선정

②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

① 혁신성·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금융지원

- 선정된 기업은 혁신성·기술력 등이 검증된 만큼, 재무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경우라도 최대한 대출·보증 등 지원
- * 혁신성·기술력 등에 따른 금융지원에 대한 「담당자 면책 부여」를 통해 적극적 지원 유도

② 기업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·보증·투자 등을 충분히 지원

- (대출) 대출한도 확대, 금리감면 등 적극 지원
- (보증) 신용보강이 필요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 확대, 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자금 조달 지원
- (투자) 성장금융 등의 정책펀드 등을 활용하여 투자 지원

③ 혁신활동을 촉진/보강할 수 있는 다각적인 非금융지원 병행

- 금융지원이 어렵거나, 컨설팅을 원하는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경영/재무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·노하우 적극 제공
-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 인프라(오픈마켓 입점, SNS활용 마케팅 지원 등) 등도 지원

③ 민간자금 후속투자 여건 조성

- 정책금융의 마중물(anchor) 역할을 통해, 민간투자자의 투자자금이 혁신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유입되도록 유도
-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VC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해 민간투자 유치 지원